



# 김노리와 이불가의 까바르디노 발카리아 선교 이야기



사역자들과 함께 한 모스크바 커피 박람회

## 2024년 5월 30일 “65 정기서신”

NAL칙은 5월인데도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계속되는데 이곳에서도 폭우와 우박으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우박이 1미터가 넘게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올해 한국은 무척 덥다고 들었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1. 떠나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 씨를 뿌리는 삶

작년 초까지는 예배 출석 인원이 30명이 넘기를 매주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평균 출석이 20명이 되기를 기도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곳은 이틀 일하고 이틀 쉬거나, 나흘 일하고 하루나 이틀 쉬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서 교회에 나오기 어렵게 되거나,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거나, 신앙이 흔들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자들의 삶을 다루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과정 가운데 마찰과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뿌린 씨가 지금 당장에는 열매로 드러나지 않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후에 저와 아내는 카페문을 열어 사람들을 만나 친구를 사귀고,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10년 전, 러시아를 떠나는 선배 선교사가 15년간 사역하였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제자도 없고 일꾼도 하나 없다며 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신자를 제자로 만드는 과정은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카페 전도사역 : 야스민과 알리아